

북

Books

구글세대는 미래사회 어떻게 변화 시킬까

밀레니얼 제너레이션

린 C. 랭카스터·데이비드 스틸먼 지음

월드컵의 거리응원과 촛불시위를 주도하며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 네트워킹으로 사회 흐름의 중심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들은 바로 Y세대, 구글세대, 에코 부머(Echo Boomer), 테크세대라고도 불리는 밀레니얼 세대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과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아이튠즈로 음악을 들으며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 일을 모두 한꺼번에 처리하는 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세대 간의 충돌'로 유명한 린 C. 랭카스터와 데이비드 스틸먼이 쓴 '밀레니얼 제너레이션'은 X세대(1965~1981년 생) 이후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가 과연 누구이며, 이들이 앞으로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분석한 책이다. '밀레니얼'은 '밀레니엄'의 형용사형.

원제는 'M 팩터 : 밀레니얼 세대는 어떻게 직장을 흔들고 있나'(The M-factor : How the Millennial Generation is Rocking The Workplace)이다. 여기서 'M 팩터'는 밀레니얼 세대의 기반이자 그들의 직장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리킨다.

저자들은 밀레니얼 세대를 만들어내는 기반이자 이들을 움직이는 'M 팩터' 즉 핵심 요소로 부모, 권능감(權能感), 의미, 높은 기대치, 빠른 속도, 소셜 네트워킹, 협력 등 7가지를 꼽는다.

밀레니얼 세대는 대학 졸업 이후에도 부모의 보호를 받고 많은 칭찬 속에서 자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는 권능감을 갖고 있으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어한다는 것.

또 성공과 성취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빠른 속도의 컴퓨터와 소셜 네트워킹에 익숙하며 협력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요구한다는 게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저자들의 분석이다.

새로운 세대가 출현하면 기존 세대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지난 시기 X세대가 처음 나타났을 때에도 이런 세대들은 반신반의하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측면이 강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들은 단순히 밀레니얼 세대를 비판만하는것에만 그치지



밀레니얼 세대는 1982~2000년에 태어난 젊은이들이다. 강한 개성을 가진 이들은 앞으로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세대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않는다. 그들의 장·단점과 특징을 동시에 언급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기존질서에 적응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한다.

특히 이 책에서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부분은 직장 내에서의 밀레니얼 세대의 등장이다. 직장에서 그들의 모습은 기존 세대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낯설기만 하다.

저자들은 미래 사회의 중심이 될 그들과 한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미래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고 전개될지에 대해 예측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서 저자들은 새로운 세대의 등장에 따른 충격과 당혹감이 어찌면 더 나은 방식과 조직문화를 찾아내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향후 20년간의 성공 여부는 이를 세대에 달려 있음을 각인 시킨다.

대부분 미국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과 이들이 열어 갈 미래 사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지만 새 천년을 앞두고 출현한 한국의 신인류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숲 1만79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데카르트 '방법서설' 등

핵심 고전 94권 실어

2004년 출간된 사사기 다케시의 '교양으로 읽어야 할 절대지식' 개정판이 '절대지식 세계고전'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나왔다.

초판본에 실렸던 219권의 세계 고전 가운데 밀의 '자유론', 마르크스의 '자본론', 데카르트의 '방법서설' 등 핵심 고전 94권만 골라 실었다.

쉽게 다가가기 어려웠던 고전의 핵심 내용을 고전 저자들의 사상적 배경과 시대 상황을 곁들여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현대 사상의 흐름, 경제학 사상의 계보 등 사상의 조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도표도 수록돼 있다.

(이다미디어·1만8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성태망태 부리붕태

전성태 지음



답아냈다.

그 기억은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품에서 시작된다. 따뜻한 미소를 머금게 하는 구수한 입담 사이로 드러나는 어머니와의 이야기들은 가슴 뭉클한 감동도 전한다.

작자의 고향은 낙후된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연탄이 뭔지 몰랐고 TV를 보려고 다른 마을로 멀리 가야 했다. 그러나 그때 그 시절이 작가에게는 가장 '완벽한 세계'로 남았다.

그 시절의 뜻뜻한 기억에서 '주운' 사연들은 '지어낸 것'들보다 더 익살맞다. 마을 청년들이 고갯길을 넘는 트럭에 올라타 수박이나 음료수 등을 몰래 내려서 멋진 시절, '묵직하고 구멍이 송송 난 검은 물건'을 발견하지만 이듬해 봄에야 그 물건이 연탄임을 알게 된다.

우선 제목부터 유쾌하다. 의상스런 표지에 '성태 망태 부리붕태'로 불리었는데 알고 보면 작가의 어린시절 별명이다. 작가는 농촌현실을 해학적으로 그려낸 첫 소설집 '매향'을 비롯한 여러 작품에서 토속적인 언어로 농촌의 풍경을 생생하게 그려왔다. 이 번 산문집에도 유년 시절의 진솔한 경험을 맛깔나게

작가의 유년 시절 일화 맛깔나게 담아내다

전성태 지음

답아냈다.

그 기억은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품에서 시작된다. 따뜻한 미소를 머금게 하는 구수한 입담 사이로 드러나는 어머니와의 이야기들은 가슴 뭉클한 감동도 전한다.

작자의 고향은 낙후된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연탄이 뭔지 몰랐고 TV를 보려고 다른 마을로 멀리 가야 했다. 그러나 그때 그 시절이 작가에게는 가장 '완벽한 세계'로 남았다.

그 시절의 뜻뜻한 기억에서 '주운' 사연들은 '지어낸 것'들보다 더 익살맞다. 마을 청년들이 고갯길을 넘는 트럭에 올라타 수박이나 음료수 등을 몰래 내려서 멋진 시절, '묵직하고 구멍이 송송 난 검은 물건'을 발견하지만 이듬해 봄에야 그 물건이 연탄임을 알게 된다.

우주과학자를 꿈꿨다는 작가가 소설가의 길을 걷기로 마음먹은 일화도 엿볼 수 있다. 고향집 근처 절에서 보낸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한방에 머물던 삼십 대 중반의 고등학교 영어교사가 쓴 연예편지를 본 순간이다.

"적어도 글이 이쯤은 꽤야지. 나는 뭉클한 마음으로 중얼거렸다.(중략) 내 사명은 그렇게 쓸쓸하게 끝났지만 나는 새로운 각오로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이 기뻤다. 나는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선데이 서울)과 연애편지 중)

누구나 갖고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지만 작가 특유의 사투리와 구수한 입말들은 우리에게 낯설고 친숙한, 배꼽 잡게 우스우면서도 순간 가슴 한편이 머리해지는 감동과 재미를 선사한다. (좋은생각·1만2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우주과학자를 꿈꿨다는 작가가 소설가의 길을 걷기로 마음먹은 일화도 엿볼 수 있다. 고향집 근처 절에서 보낸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한방에 머물던 삼십 대 중반의 고등학교 영어교사가 쓴 연예편지를 본 순간이다.

"적어도 글이 이쯤은 꽤야지. 나는 뭉클한 마음으로 중얼거렸다.(중략) 내 사명은 그렇게 쓸쓸하게 끝났지만 나는 새로운 각오로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이 기뻤다. 나는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선데이 서울)과 연애편지 중)

누구나 갖고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지만 작가 특유의 사투리와 구수한 입말들은 우리에게 낯설고 친숙한, 배꼽 잡게 우스우면서도 순간 가슴 한편이 머리해지는 감동과 재미를 선사한다. (좋은생각·1만2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시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려개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아리울공인중개사

☎ (063)583-7788

㈹ 010-8004-5900

(전북 서래안, 세미원 진료분소)

▶ 편선건물 투자, 직영, 임대,

▶ 대지 300평 건물 140평

▶ 매기 7억

▶ 직영시 월 수입

▶ 최저 1300만원 이상 발생

▶ 용자 2억 이상 가능

▶ 투자용 편선 용지

▶ 150~300평

▶ 평당 50~100만원

▶ 해수욕장 주변으로 배산임수

▶ 갖춘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

은 곳으로 투자 최적화.

▶ 투자용 전원주택 용지

▶ 150~300평

▶ 평당 25만~35만원

▶ 새만금 일직지역을 탈피

하고 한기로운 전원 주택지

를 찾는 수요가 날로 증가하

고 있는 실정인.

▶ 새만금 관광시대 일박으

로 편선투자시 광주지역

원룸부지의 절반 금액으

로 수입은 3배이상 금리

는 낸 25% 이상 보장되는

물건만 취득

▶ 2010년 4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개凿으로 지

금이 투자격기!

아담공인중개사

010-3616-8698

062-233-2222

나대지

서구 생활동 호남대 건너편 구상군관사 1,845㎡, 제1종일반주거지역.

10m진입로, 매매가 8.3㎡당 160만원, 종교시설, 요양원적지.

식당, 전원주택

광산구 선암동 호남대옆 3,458㎡ 3.3㎡당 100만원.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위로 조망양호.

전원주택, 종교시설용지

광산구 산월동 보훈병원앞 9,722㎡ 3.3㎡당 60만원.

자연녹지지역, 분할가능.

식당, 사옥

서구 미륵동 서남대병원 앞 대지 1,337㎡, 연면적(2층) 400.2㎡.

매매가 11억.

서구 능성동 구 한전앞 대지 719.7㎡, 연면적(3층) 328.9㎡.

매매가 11억.

전원주택

북구 화암동 대지433㎡, 전일 1,994㎡ 구 주택2동.

매매가 1억8000만원, 조망 경관양호.

나대지(주택)